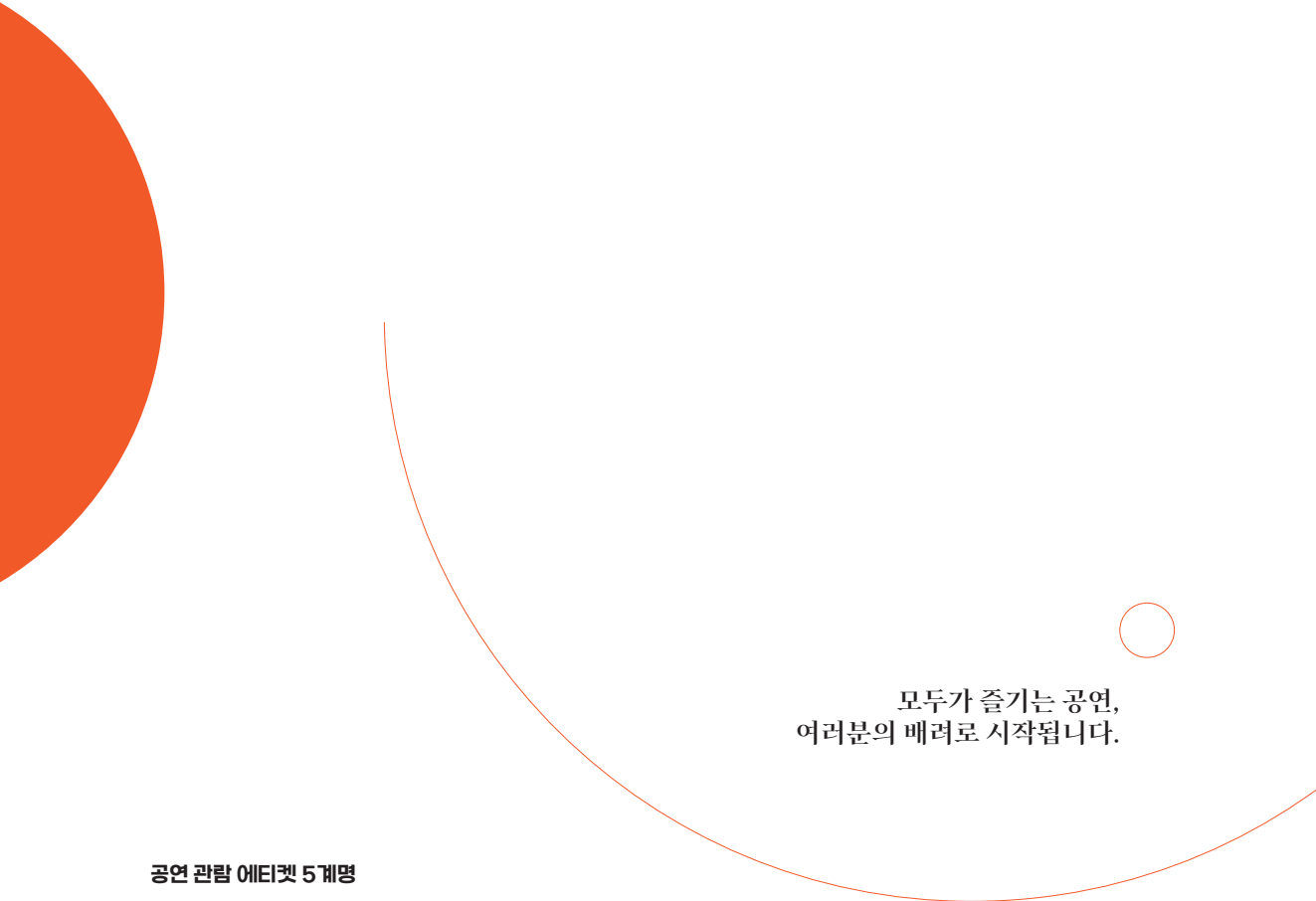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깊은 밤 들려오는
유목민의 노래

KBS교향악단 제801회 정기연주회

THE MELODY OF THE NOMAD
REACHING THROUGH THE DEEP NIGHT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77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Op.77

⌚ 39'

1악장 보통 빠르기로
Moderato

2악장 스케르초
Scherzo

3악장 파사칼리아. 느리게
Passacaglia. Andante

4악장 익살스러운. 힘차게 빨리
Burlesco. Allegro con bri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드보르자크
A. Dvořák

교향곡 제8번 G장조, 작품88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 36'

1악장 빠르고 생기있게
Allegro con brio

2악장 느리게
Adagio

3악장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 아주 빠르고 생기있게
Allegretto grazioso - Molto Vivace

4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Allegro ma non troppo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dreas Zihler



PIETARI INKINEN CONDUCTOR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그라모폰〉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또한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다.

그는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2023/24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데뷔하였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에서 바그너의 〈탄호이저〉 프로덕션을 이끌었다.

그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하였으며, 2023년에는 〈니벨룽의 반지〉 전막 프로덕션을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에서 최고 지휘자 상을,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페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였으며,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던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산토리 홀에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의 실황 녹음을 남겼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발취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K A R E N G O M Y O

VIOLINIST

바이올린 카렌 고묘

카렌 고묘는 '탁월한 음악적 역량과 활기, 재기, 강렬함을 갖춘 일류 아티스트'(일간지 시카고 트리뷴)로서, 감정적으로 깊고 마음을 울리는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고 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드문 연주자다. 바이올린을 장악하는 기교와 우아한 표현능력을 갖춘 고묘는 오늘날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손꼽힌다.

2023/2024 시즌 고묘는 윤 스토르고르가 이끄는 시카고 교향악단, 세몬 비치코프가 이끄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리오 쿠오크만이 이끄는 아일랜드 국립 교향악단과의 첫 협연 무대에 오른다. 또한 콘스탄티노스 카리디스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 작곡가 새미 무사가 지휘하는 빌바오 교향악단, 제라드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밴쿠버 교향악단 등과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다. 2024년 2월, 고묘는 파비오 루이지가 이끄는 델러스 교향악단과 재회해 시왕(Xi Wang)의 트럼펫,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020년』을 트럼펫 연주자 티네 딩 헬세트와 함께 세계 초연하였다. 자주 협업하는 지휘자 아쿰 하루샤와도 도쿄 메트로폴리탄 교향악단에서 재회해 일본 무대에 오른다.

이후 호주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관심에 부응해 2024년 8-9월 동안 투어에 나서며, 싱가포르, 멜버른, 시드니, 태즈메니아, 호주 서부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고묘의 주요 활동으로는 뉴욕 필하모닉과 피츠버그 교향악단, 스페인 국립 관현악단, 체코 필하모닉,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등과의 첫 정기연주회가 있다. 고묘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함께 할리우드 볼에서 연주하기도 했고, 미코 프랑크가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이끄는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과 재회하기도 했다.

고묘는 실내악에도 열정을 보이는 음악가로, 올리 머스토넨,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엔리코 파체, 제임스 에네스, 노아 벤딕스 발글레이, 카시모토 다이신, 에마누엘 파워, 줄리안 슈테켈, 하인리히 시프,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기타리스트 이소모 에스켈리넨 등과 연주한 바 있으며, 특히 에스켈리넨과는 BIS 레이블에서 이중주 앨범 『Carnival』을 발매하기도 했다.

고묘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를 매우 아껴서 피아졸라와 함께 긴 시간 연주한 피아니스트이자 탱고의 전설인 파블로 지글러뿐 아니라 엑토르 델 쿠르토, 제이피 조프레, 마르셀로 니신만 등의 반도네온 연주자와 자주 협업한다. 2021년에는 페이 드 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의 현악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스테파니 존스와 함께 BIS에서 『A Piazzolla Triology』를 발매하기도 했다.

고묘는 새로운 음악의 작곡을 의뢰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묘는 새미 무사의 바이올린 협주곡 『Adrano』를 피츠버그 교향악단과 함께 미국에서 초연했고, 마티아스 핀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Mar'eh』을 작곡가 자시의 지휘 아래 미국 초연 무대에 올렸다. 2018년 5월에는 새뮤얼 애덤스의 새로운 실내협주곡을 지휘자 에사 페카 샬로넨과 시카고 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세계 초연했는데, 이 곡은 시카고 교향악단 창설 20주년을 맞아 '오늘의 음악(Music Now)' 시리즈의 일환으로 의뢰되어 고묘를 위해 작곡된 음악이다.

고묘는 도쿄에서 태어나 몬트리올과 뉴욕에서 음악 커리어를 시작했다. 줄리아드 스쿨에서 전설적인 교수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한 뒤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음악대학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공부를 이어갔다. 고묘는 일본 NHK 방송에서 제작해 전 세계에 방영된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최고의 바이올린에 얽힌 수수께끼(The Mysteries of the Supreme Violin)』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진행자, 내레이터로 참여하기도 했다.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77

D.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Op.77

작곡연도	1948년
초연	1955년 10월 29일, 러시아
편성	플루트3(피콜로 겸함), 오보에3(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3(베이스클라리넷 겸함), 바순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튜바, 팀파니, 탬버린, 탐탐, 실로폰, 첼레스타, 하프2, 현5부
연주시간	약 39분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두 번째 협주곡이자 첫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은 마치 작곡가의 상황을 대변하듯 다소 기구하다. 작곡을 마친 1948년, 쇼스타코비치는 시쳇말로 당국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향곡 9번 E flat장조 Op.70>으로 인해 '즈다노프시나'(Zhdanovsina)에 휘말려, 주변인들이 사라지거나 끌려가는 등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즈다노프시나란 안드레이 즈다노프(Andrei Zhdanov)가 진두지휘한 '문화계 숙청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즈다노프시나는 1946년에 소련 작가 동맹회의 연설을 통해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Anna Akhmatova)와 풍자 작가 미하일 조셴코(Mikhail Zoshchenko)를 반체제적 문인으로 공개 비판하면서 이들을 작가 동맹에서 제명하며 시작했다. 1948년부터는 소련 음악계에도 대대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해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하차투리안 등의 작곡가들을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념을 경시하고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형식주의를 추종했다"고 맹비난하며 이들을 작곡가 동맹에서 제명시키고 자아비판을 강요했으며, 작품 연주도 금지했다.

영국의 소설가 줄리언 반스(Julian Barnes)는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재구성한 소설 <시대의 소음>(The Noise of Time, 2016)에서 당시 작곡가의 기구한 상황을 "스탈린의 러시아에는 ... 두 가지 종류의 작곡가만 있게 될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살아 있는 작곡가들과, 죽은 작곡가들"(p.75)이란 문장으로 표현했다.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음악과 주위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남는 쪽을 택했고, 비굴하게 체제를 찬양하며 버틴 것이다.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그 특유의 분위기와 신랄하게 비판적이고 반어법적 어조가 다시금 스탈린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했기에, 한동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후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예술계의 저항이 힘을 얻기 시작한 1955년 이 작품은 어두컴컴한 서랍에서 탈출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작곡과 발표 사이의 7년의 공백기 때문에 이 곡은 2개의 작품 번호를 지니게 됐고, 현재는 'Op.77(99)' 등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를 빼놓기 힘들다. 쇼스타코비치가 작곡 당시부터 오이스트라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오이스트라흐의 명성만큼이나 현란한 테크닉을 요구한다. 초연 또한 오이스트라흐의 몫이었으며, 발표 후 한동안은 이 곡의 수많은 연주와 녹음은 오이스트라흐가 도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Op.77(99)>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보통의 협주곡이 3악장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4악장 구성을 취한다는 점이다. 3악장과 4악장 사이에 독주 바이올린의 거대한 카덴차가 자리하고 있는데, 한발 물러서서 보면 카덴차가 3, 4악장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해 하나의 악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진중한 분위기의 3악장과 축제 풍의 4악장 사이에서 카덴차가 그라데이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음울한 분위기가 카덴차를 거치며 축제풍으로 변모하는 구성은 한편으로 베토벤의 '어둠에서 광명으로' 주제를 연상시키기도 하며, 참아내고 버티며 살아남는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그의 음악은 시대와 체제를 넘어 음악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런 대담한 구성이 궁금하시요?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G장조, 작품88

A. Dvořák,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작곡연도	1889년
초연	1890년 2월 2일, 체코 프라하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36분

드보르자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최초의 보헤미아의 작곡가”라는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의 설명처럼 체코 민족주의 작곡가의 대표 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교향곡 제8번 G장조 Op.88>은 그의 9곡의 교향곡 중에서도 드보르자크의 민족적 정서적 배경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작곡가는 1889년 체코 프라하 서남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비소카(Vysoka)라는 작은 산간마을의 별장에서 이 곡을 썼으며, 비소카에서 받은 영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헤미안의 정서가 짙게 깔린 이 곡이 당초에 ‘런던’이라 부제로 출판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드보르자크는 1884년 처음 영국을 방문했고, 당시 연주한 <스타마트 마테르>가 대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189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12회에 걸쳐 방문할 정도로 영국과 깊은 인연을 쌓았다. 1892년 런던의 ‘노벨로 출판사’에서 <교향곡 제8번>이 출판된 것도, ‘런던’이란 부제를 갖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곡은 런던의 출판사에서 출판됐다는 점 외엔 영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런던’이란 부제도 결코 작곡가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교향곡 제8번>은 한동안 ‘교향곡 제4번’으로 불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동은 비단 <교향곡 제8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드보르자크는 총 9곡의 교향곡을 썼다. 하지만 작곡가의 생전에 출판된 작품은 5곡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신세계로부터”란 부제로 불리는 <교향곡 제9번>은 ‘5번’으로 알려졌다. 그의 초기 교향곡이 출판되지 않았던 이유는 작곡가로서의 성공이 다소 늦게 찾아왔기 때문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모든 교향곡이 출판돼 작고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교향곡 제8번>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목가적이다. 비소카 마을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생생하다. 1890년 4월 런던에서 초연을 가진 뒤, <런던 타임즈>는 이 작품을 ‘전원 교향곡’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 곡이 화사하고 말랑말랑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수많은 프레이즈마다 심연의 깊은 곳으로부터 에너지가 이글거리며, 때론 폭발하기 때문이다. 이 곡을 작곡할 시기의 드보르자크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 작곡가로서 원숙기에 접어들었다. 전통적인 교향곡의 형식에서 벗어나 당시로서는 꽤 과감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특히 금관이 주도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클라이맥스가 선사하는 청량감은 당시의 관객은 물론 오늘날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첼로와 호른이 제시하는 1악장의 첫 번째 주제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어 목관악기가 연주하는 목가적인 풍경은 비소카 마을의 풍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2악장에 이르러선 이러한 특징이 한층 진하게 다가온다. 특히 새의 노랫소리를 연상케 하는 미묘한 음색이 신비롭다.

3악장은 전통적인 스케르초보다 민요적인 리듬이 춤곡을 떠올리게 한다. 바이올린이 이끄는 주제 선율과 민요적인 리듬이 교차하며 자아내는 우아한 분위기는 이어지는 4악장 도입부의 트럼펫 팡파르와 대조를 이룬다. 이 팡파르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기술(記述)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보헤미안 작곡가”임을 스스로 선언하듯 힘차고 당당한 어조를 지닌다. 18마디 뒤에 팀파니의 등장을 기점으로 보헤미안적인 주제가 첼로에 의해 제시된다. 이어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가 합세해 열기를 더하고 순식간에 클라이맥스로 질주한다.

글 | 권고든(음악 칼럼니스트)

기적같은 순간의 연속이었던
KBS교향악단
제800회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를 카운트하는 국내 교향악단으로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차인 <800회 정기연주회>.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컸지만 음악감독인 피에타리 잉키넨은 무릎 인대 파열로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고, 공연을 이틀 앞두고선 소프라노 조수미의 급성 후두염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나타난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차이콥스키 연주는 급조된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로마 3부작'을 한 무대에서 연이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꿔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기적 같은 순간을 선물하였다.

KBS교향악단
제800회 정기연주회

2024.03.29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I S S U E

KBS교향악단 3월 주요 이슈

K B S S Y M P H O N Y O R C H E S T R A

KBS 시청자
감사음악회

2024.03.22
여의도 KBS홀



잉키넨이 키운
청소년 지휘자 이찬,
데뷔 무대 가져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선보인 'KBS교향악단 청소년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한 이찬(20, 대전예고 졸, 첼로 전공) 학생이 지난 3월 22일 KBS시청자감사음악회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지난 1년간 특급레슨을 받아온 이찬 학생은 이번 공연에서 70인조의 KBS교향악단과 함께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를 지휘하며 '완벽한 지휘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유튜브 폭발적 반응 ‘궁예 레퀴엠’,
정명훈의 베르디 <레퀴엠> 성료

파격적인 콘텐츠 ‘궁예미’으로 누리꾼의 주목을 이끌었던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I’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날 연주된 베르디의 <레퀴엠>은 7개의 악장 중 두 번째 악장 ‘진노의 날 (Dies Irae)’이 가장 유명인데, 이 멜로디와 함께 배우 김영철의 후원 소식을 전하며 만든 “궁예 레퀴엠” 홍보 영상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단 30초의 짧은 영상으로 예매율이 급격히 올라갔던 이번 공연은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평소 클래식에 무관심했던 많은 MZ 세대 관객들이 찾아와 공연을 즐겼다.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I

2024.03.07
롯데콘서트홀

KBS교향악단 6년 만의 음반 발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KBS교향악단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워너클래식 레이블을 달고 6년 만에 음반을 발매했다.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음반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을 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23년 8월 제76회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한 바 있다. KBS교향악단은 음반 제작을 통해 오케스트라 연주의 품질을 기록, 보존하는 것 외에도 KBS교향악단의 명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한 음반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KBS교향악단 X 김호중
더 심포니

2024.03.02
여의도 KBS홀

KBS교향악단 X 트바로티 김호중
역사적인 만남, ‘더 심포니’

대중가요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트바로티’ 김호중과 KBS교향악단이 ‘더 심포니’로 함께 했다.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장을 연 ‘더 심포니’는 개최 소식 이후 티켓 응모 이벤트에만 7만 명 이상이 몰려 화제성이 남달랐는데, 무대에 오르는 과정 모두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방영된 바 있다. 모두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부터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오페라 아리아까지 선보였다.

KBS교향악단 제800회 정기연주회 리뷰

로마의 축제

KBS교향악단은 대망의 제800회 정기연주회를 레스피기를 위시해 벨리니, 도니체티, 베르디 등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의 오페라 아리아로 꾸미는 ‘로마의 축제’로 기획했다. 이를 위해 역대 정기연주회 역사상 전례없는 파격적인 협연자로 소프라노 조수미를 섭외해 공연의 전체적 구성을 탄탄히 했다. 그러나 공연이틀 전 조수미는 악단측에 급성 후두염 소식을 전했고, 악단은 급하게 조수미의 무대를 대체할 연주자를 찾아야 했다. 김봄소리의 차이콥스키 D장조 협주곡 무대는 그렇게 급조된 무대였다. 조수미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회원은 물론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 도니체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중 ‘모두가 알고 있지(Chacun le sait)’를 노래했다. 조수미와 KBS교향악단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1983년 유학길에 올라 86년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 해외 오페라계에서 승승장구 하던 중 귀국독창회나 다른 없는 1993년 독창회(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알프레도 실리피니 지휘의 KBS교향악단의 지휘에 맞춰 무대를 가진 이후 각종 크고 작은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이날 조수미는 “1956년 12월 20일 KBS교향악단의 역사적인 첫 정기연주회 협연자가 자신의 스승(소프라노 이경숙)이었다며 800회 정기연주회에서 자신이 노래하고 있음에 감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8000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랑과 응원을 드린다.”고 말해 목직한 울림을 전했다.

봄소리는 지난 2019년 파비오 루이지 &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의 협연자로 선정되어 이번에 연주한 차이콥스키의 협주곡을 연주한 바 있다. 수년 전 연주에 비해 표현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고 과감해진, 다소 직선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듯한 해석이라는 인상을 받은 반면에 잉키넨의 KBS교향악단은 협연자의 컨디션에 흔들리지 않고 템포와 다이내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때때로 독주 악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마냥 이끌려가는 경우나 혹은 마치 반주 MR을 틀어놓은 듯 무색무취의 오케스트라 파트를 경험하곤 하는데, 이날 차이콥스키의 전권은 분명 잉키넨에게 있었고, 1악장의 주요 소재인 제1주제가 오케스트라 총주로 폭발하는 하이라이트 부분과 ‘질주하는 폭주기관차’라고 해도 그 누구도 반박 불가능한 3악장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보여준 에너지틱은 흥분과 품위를 동시에 품은 명연주라 여겨진다. 협연자는 잉키넨에게서 흐르는 에너지를 이어받곤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팔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아 보여 안쓰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기품있는 소리를 당당함으로 대처하는 봄소리의 의지가 청중에게 적잖은 감동을 주었다.

잉키넨은 애초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을 1부 ‘로마의 축제’와 벨리니, 도니체티, 베르디의 노래와 엮고 인터미션 후에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를 연주하는 구성으로 계획했으나 협연곡에 차질이 생기면서 로마 3부작을 2부에 연이어 연주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레스피기 로마 3부작을 한 무대에서 연이어 감상하는 무대를 갈망하던 이들에게는 더없는 축복을 누린 셈이다. 이날 연주는 프란츠 벨저-뵈스트가 음악감독으로 재직중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악장 데이비드 라진스키(David Ratzynski)가 객원악장으로 나서서 잉키넨과 함께 로마 3부작을 이끌었다. 로마 3부작 중 가장 나중에 작곡된 ‘로마의 축제’가 먼저 연주됐는데, 장대하면서도 강렬한 이 작품에서 레스피기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로마의 주요 사건과 장면들을 소재로 삼아 로마의 종교적 이미지와 열정적인 이탈리아인의 초상을 부각했다. 기독교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을 표현한 1악장에서 포효하는 관악과 신음하는 현악기가 순식간에 장내 공기를 흐름을 반전시켰다. 그런가하면 만돌린 이 투입되어 르네상스 시대의 농민상을 그린 3악장의 세레나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IL KUN1000 QR

로마 3부작 중 가장 먼저 작곡된 ‘로마의 분수’는 ‘줄리아 골짜기 여명의 분수’, ‘아침 트리토네 분수’, ‘한낮 트레비 분수’, ‘황혼녘 빌라 메디치 분수’로 명한 각 악장의 표제에서 알 수 있듯 고즈넉한 목가적 정경, 어스름한 안갯 속 양떼와 양치기의 모습이 오보에와 클라리넷, 플루트 등 목관의 음색으로 절묘하게 표현되는가 하면 유명한 트레비 분수를 배경으로 금관의 팡파르와 오르간까지 가세하며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미를 장식한 역작 ‘로마의 소나무’는 이날 공연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였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으로 일명 ‘팀짚남(팀파니를 짚은 남자)’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스타 연주자로 급부상한 이원석 수석은 물론 전 타악기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술향을 맡으며 주변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명량한 모습(빌라 보르게제의 소나무), 핍박을 피하기 위해 지하의 무덤으로 향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렬과 그들의 경건하면서도 엄숙한 노랫소리(카타콤베의 소나무), 레스피기 자신이 직접 녹음하기도 했다는 나이팅게일(새)의 울음소리(자니 콜로의 소나무), 고대 로마 제국의 위세를 찬양하는 이 모든 장면에서 로마 동남부로 뻗어있던 소나무(아피아 가도의 소나무)들의 모습을 분산화음과 글리산도로 흠뻑리고, 트릴로 싱그러움을 발산하며, 약음기를 달아 아스라한 음의 커튼을 드리우고, 웅맹스런 관악의 팡파르를 울리며 완벽한 대서사를 그려냈다.

조수미의 후두염, 김봄소리의 컨디션 난조보다 더 큰 악재는 잉키넨의 부상이었다.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의 코너 ‘나이스투 매튜’에 출연해 4세 때부터 취미였다는 알파인 스키를 타던 중 일순간의 방심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잉키넨은 이날 전 스테이지를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지휘했다. 악재에 악재를 더한 상황 속 악단 사무국이 가슴 쓸어내리는 장면을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스테이지가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완성도를 보였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국립교향악단의 시절을 거쳐 국영방송 소속 시절부터 지금까지 TV 광고로 정기연주회를 홍보하는 유일한 악단. 15초에서 30초 분량의 그 짧은 시간 속 음악을 실연으로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던 관객들. 클래식을 갈망하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시대가 되었고 분명 KBS교향악단은 이같은 현재를 만드는데 영향력을 끼친 단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펜데믹 속 가장 먼저 무대에 복귀하고, 국가적 행사나 공익을 위한 연주에도 소신껏 응하고 있으나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악장 선임 문제나 조직력 강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성공적인 800회 정기연주회의 회멸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글 | 김은중(음악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약장* 부약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해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비올라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진덕+ 한벨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헌

첼로
더블베이스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플루트
오보에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클라리넷
바순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트럼펫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베이스트롬본

윤지언

정다운

튜바
림파니

Norito Usui

이원석+

타악기
하프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김서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약기담당)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과장 장동민

공연사업팀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사원** 차하영 장태형 PD 서영재

팀장 손대수 **차장** 유정의 유연철 박연선 **사원** 윤자윤

객원수석

약장

김소영*

(Bayerisches Staatsorchester 제1바이올린 단원)

플루트

안명주+

클라리넷

조인혁+

호른

Mischa Greull+

트롬본

David Andrew Bremner+

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턴십 2기

제1바이올린

김수연

제2바이올린

박예진 이예경

비올라

이태형

첼로

김유림 심수연

바순

최찬열

호른

민예원

트럼펫

이영훈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후원회원 가입의 길
여기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 전)KBS교향악단 이사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 현 KBS교향악단 이사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Prelude	박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 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해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전병울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윤상욱 분당차병원 병원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Nocturne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셀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